

## 진리는 변하지 않음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전 196)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의 지계표를 옮기고자 결코, 결코 시도하지 말라**. 진리는 영원한 반석, 곧 폭풍과 강풍이 결코 옮길 수 없는 기초 위에 세워져 튼튼하게 서 있다.” (교회증언 8 권 162)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목사, 피얼스 아버지\*, 하이럼 에드슨 목사 및 그외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 년의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 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 직분에 관한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 때로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르는 일련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 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 주었다.” (1 가려 206, 207-1904 년)

“우리 백성들은 우리 신앙의 이유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의 **과거의 체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고 옛날의 이정표들을 옮겨버릴 경향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인간에게 과도한 신뢰심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거짓 영에게 쉽사리 이끌려 가는 자들은 저들이 한동안 그릇된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어 저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실을 스스로 식별하지 못하고 참된 기초 위에 믿음을 건설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 2:19)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 3)에 대한 옛 증거들을 소생시킬 필요가 있다.” (2 가려 25-1904 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확실한 진리임을 증거하면 그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로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대되는 가설(假說)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성서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임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주신 빛에 반대되는 새로운 빛들이 계속 잇달아서 일어날 것이다. 아직도 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일은 체험을 거쳐서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명을 당신의 자비로 보존하셔서 마치 사도 요한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 것처럼 저들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진리의 기수(旗手)들은 저희가 쓴 글의 재판(再版)을 통해서 증언할 것이다. 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들의 음성을 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저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임을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

“우리들은 신앙의 특수한 요점에 반대되는 기별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들은 많은 성경절들을 모아서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증거하는 재료로 쌓아 올린다. 지난 50 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일어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성경 말씀의 적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50 년 동안 지탱해 오신 기초에서 기둥을 옮기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과거의 기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히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1 가려뽑은 161-1905 년)

“우리의 초기 경험에 주어진 근거는 그 때 있었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그러했던 것 과 같이 지금까지 동일하며 진리의 구조물에서는 하나의 핀이나 기둥을 옮길 수 없다. 1844, 1845, 1846 년에 말씀에서 찾아낸 진리는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라도 진리로 남아있다.” {E. G. White, *Manuscript Releases Volume 1*, p. 52} 1906 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기 간행물들에 대한 빛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이 말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 그들의 수고가 그들을 뒤 따를 것이다. 우리는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던 우리 사업의 선구자들의 글을 반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기초를 놓는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 한 단계 씩 전진하였었다. 이 선구자들이 하나씩 잠들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들이 전에 쓴 글들을 재출판하라는 것이다.” {E. G. White, *Review & Herald*, May 25, 1905 년}

“1844년 10월 22일,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리를 찾던 사람들 가운데는 나의 남편, 죠셉 베이츠 장로, 파더 피얼스, 옛슨 장로와 슬기롭고 고결하며 진실 된 인품을 가진 한 사람과 그 밖에 내가 지금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중요한 집회에 함께 모여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고자 했다.

나는 그들과 만났으며 우리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연구하며 기도하였다.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함께 남아 있었으며 때로는 빛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온 밤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나의 마음은 꽉 잠겨 있었으므로 우리가 연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절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들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한 진리의 사슬이 내 앞에 명백히 제시되었다. 나는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내가 계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저들은 내가 받은 계시를 하늘로부터 직접 주어진 빛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 신앙의 주요한 요소들이 견고하게 세움을 입었다.**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규명되었으며 그 결과로 모든 형제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믿는 모든 무리들이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다.** 물론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대면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 경험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훌륭하게 확립되었다.** ...”(원고 135. 1903).

“현재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을 형성시켜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보는 데서 우리의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교회 증언 6 권 17-1901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특히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전해 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 모든 문제마다 일일이 신중한 연구에 의해서 규명되고 주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증거된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온갖 의식과 방법에 대한 기별이 촉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정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정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확실한 권위에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1 가려 208-1904년)

“원근(遠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경고의 책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기별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게 한 믿음의 기초**를 약화시키거나 믿음의 초석들을 옮길 말씀의 응용을 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을 따라 **우리들이 발전하여 온 것처럼 순서적으로 밝혀진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 경험의 과거 역사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터를 닦아나가며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일련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빛의 모든 광선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연구하고 마치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셨고 지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발전하였으나 진리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릇 해석되고 잘못 적용된 성경 말씀과 진리와 유사한 이론들이 혼합되어 위험한 오류로 인도하여 왔다. **우리들은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어떻게 확립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진리에 인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내가 진리를 가졌으니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항상 들려왔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렘 23:21)였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하였으며 진리인 당신의 계시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차례로 확립되었다. 그 때에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다.**” (1 가려 103-104) (원고 31, 1896).

“우리의 초기 경험에서 주어진 진리에 비추어, 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오류들이 우리를 압박했고, 목사와 의사들은 새 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많은 기도로 성경을 연구하곤 했으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제시하곤 하셨다. 때로는 성경 연구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온 밤이 바쳐졌다. 열심 있는, 헌신한 남녀들이 이 목적을 위해 모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했고 나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원고 720 22-23)

“미구에 온갖 기만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발이 확고한 곳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건물을 위해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께서 세운 것에서 단 한 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대적은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이론들을 들여올 것이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지점 중의 하나이다. 그것이 주께서 **지난 오십 년 동안 주신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 안전을 찾을 것인가?” (리뷰 앤드 헤랄드, 1905. 5. 25.)

“**경험이 많은 일꾼들,** 곧 무겁게 억누르는 부담을 짊어지도록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던 때에 그것을 짊어지고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신실함을 입증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 **현대 진리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백발이 되도록 애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흠을 잡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비난과 그대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그대들을 대적하여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주지 않으신 한 그대의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그대에게 맞지도 않는 책임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교회증언 3 권 320-321)

“나는 정기 간행물이나 책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진리가 기록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반세기 이상이나 당신의 사자들의 오른 팔을 보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 그와 같이 해야 하셨는가? 그것은 만일 진리가 그와 같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구자들이 죽게 될 때는 때때로 그릇된 감정이나 위험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을 진리의 기별로써 받아들이게 될 믿음의 초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람들이 “특별한 빛”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처럼 실제로는 자라나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그럴 듯한 오류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그와 같은 종류의 오류들을 즐겨 받아들일 것이다. 그릇된 이론들을 받아들이며 나의 저작들로부터 진리에 관한 진술들을 모아 그 그릇된 이론들을 정립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떼어 사용하거나 오류와 연결 지음으로 곡해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교의 씨앗들은 움이 터서 튼튼한 나무로 신속하게 성장하며 많은 귀중한 진리의 나무들로 에워싸인다. 그리고 거짓 나무의 순수성을 옹호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태초에 진리였던 것이 오늘에도 진리이다. 비록 그 후세대들에 알맞은 새롭고도 중요한 진리들이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는 하였을지라도 현재의 계시는 과거의 것들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이해된 새로운 진리마다 옛 진리를 좀 더 의미심장하게 할 따름이다.” (RH March 2, 1886)

###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현 재림교회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리뷰지의 전임 편집장이셨던 윌리엄 존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재림교 신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화잇, J. N. 앤드류스, 우라이야 스미스, J. H. 왜고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 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에(삼위일체 교리) 동의하지 않는다.” (Adventist Review, Jan. 6, 1994 p.10)

존슨 목사님은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화잇 부인은 배도의 오메가가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오리라고 예언 하셨다.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1 가려 197-1904 년)

아울러 조지 나이트 목사 역시 이렇게 인정하였다. “만일 대부분의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28 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대부분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 개 기본 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 2 번 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우리 잇으랴 10 월 7 일-미주 시조사)

“1931 년에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기본 교리로 인정하는 최초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모든 재림신도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어찌 우리 잇으랴 10 월 12 일-미주 시조사)

## 화잇 부인의 증언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교활한 오류들이 널리 퍼지는 것을 관망하면서 **침묵을 지켜서** 될 것입니까 (1 가려 195)

“이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험하고 강한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감화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기초는 우리 사업의 초기에 신중한 말씀의 연구와 계시로 쌓은 것이다. 이 기초위에 우리들은 지난 50 년 동안 모든 것을 건설하여 왔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옮겨 놓으려는 조짐이 보일 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그대들은 이상히 여길 것인가?** 나는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그 기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권리를 약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1 가려 207,208-1904 년)

## 재림교 창시자들이 현재 재림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들

### 삼위일체 교리로 인하여:

1. 십계명 위배 - 경배의 대상이 두 분에서 세분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2. 세 천사 기별 왜곡
3. 다른 예수 -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분(동일한 세 분 중의 한 분)으로 변하였음
4. 다른 영-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변하였음
5. 실제적인 아들을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킴
6. 참된 구속의 경륜(계획)의 (슌 6:13) 내용을 왜곡시킴-두 분을 세 분으로
7.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대신하여 세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므로 혼란을 초래함
8. 눅 1:35 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성령이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됨
9. 속죄의 가치를 저하시킴
10.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므로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듦 (요일 5:10)
11.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무능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이 없으신 분들로 만듦
12. 성경에 기원을 두지 아니하고 이교의 신화에 기원을 둠